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

전신인 물자마중당부터, 햇수로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언니네트워크 회원소모임 합창단입니다.

아는언니들은요,
작지만 소중한, 그리하여 깨알 같은 의미를 갖는 일상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공간입니다.

아는언니들은 길 가다 마주치는 평범한 언니들이지만,
남편, 아이, 시댁의 결혼 삼중세트 밖에도
그럴 듯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길도 씩씩하고 유쾌하게 걸어 나가는
비혼여성들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끔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숨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노래가 세상을 울로 서고자 하는 언니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 * 매주 수요일 밤 8시, 명동에 모여서 연습합니다.
- * 매 해 연말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함께 비혼의 삶을 나누고, 입모아 노래하고자 하는 언니들을 기다립니다.

아는언니들 트위터 — @iknowusisters
아는언니들 페이스북 — facebook.com/iknowusisters
후원계좌 — 국민은행 270901-04-160786 아는언니들(김미란)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 제 2회 정기공연



인생은 B급 이라도 노래는 S급, 매력 넘치는 여자들의 노래

B 인 니

t @iknowusisters
f facebook.com/iknowusisters

주최 언니네트워크

후원 월드컬처오픈 WORLD CULTURE OPEN

C!here culture1

향린교회

협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중

GREETINGS

2011년 가을,

연니네트워크 후원 행사의 축하공연을 위해 예닐곱 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럿이 모였으니 합창을 해 보자 했던 작은 시도가 지금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며,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져 왔습니다. 악보를 보는 것도 서툴렀던 우리들, 때로는 오묘한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단지 함께하는 게 든든하고 행복해서 계속 모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짜릿하고도 위태로운 하모니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숨겨져 있던 천사의 소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는언니들'이 올해로 두 번째 정기공연을 맞습니다. 'B언니'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알파걸 따위는 단호히 거부하고, 기꺼이 B급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언니들, 서로가 비혼의 든든한 뺑(Back-ground)이 되고 싶은 언니들이 바로 'B언니'입니다. 서로에게 'B언니'가 되어주기로 해 봅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X언니처럼요. 또 올해는 우리 스스로 곡을 짓고 노랫말을 붙인 노래를 처음으로 부릅니다. '생활밀착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인 셈이지요. 키치와 해학, 감동과 스릴이 넘치는 '아는언니들'의 첫 자작곡을 꼭,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미숙하지만 열정적인 우리의 모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 드림

PROGRAM

.. 1부 ..

Over the Rainbow
Born This Way
Fly Me to the Moon
Habanera

.. 2부 ..

Red Light
No Break
러브 앤 개년
우리의 노래

- INTERMISSION -

.. 3부 ..

호프만의 뱃노래
지울 수 없는 당신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It Gets Better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 테블릿 등의 소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ound off your cell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CAST

Soprano

이난 미숙함을 견뎌 준 단원들, 고맙습니다.
 소원 나에게 특별했던 2014년의 마지막을 아는연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푸하 소프라노인 듯 소프라노 아닌 소프라노 같은 나. 술은 높다.
 김나 습관처럼 오다, 습관이 행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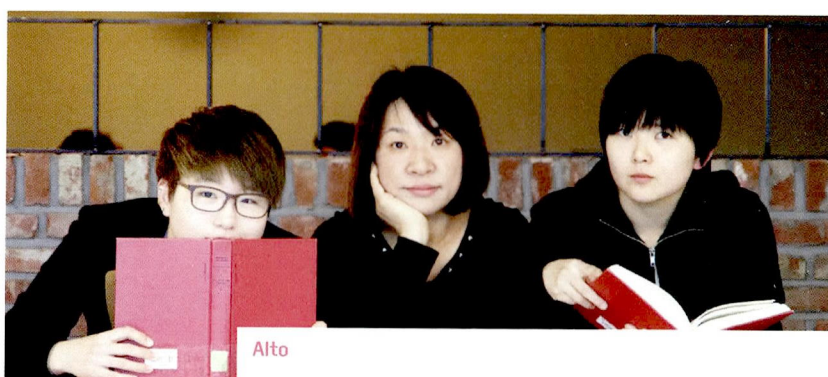
Mezzo Soprano

민 명때리기, 영동함 담당 민입니다★ 올해도 고마워요 연니들~
 서경 음치여서 소심하게, 음치지만 깨끗하게. 조금씩 시간이 쌓이네요. 고마워요
 케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 고마워요 연니들
 나랑 '목사님'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뒤쫓아하며 밤을 불사르고 싶지만... 11시 취침을 위해 오늘도 총알같이 집으로^^
 아니 아는연니들은 나의 B H 후세력~ 고맙습니다.



Piano

보보스 반주파트 결성이 목표입니다. 반주자 구해요.
 내년에는 피아노 3중주 갑시다.



Alto

의현 Take it easy!
 밀알 높은 미를 내려는 순간 낮은 미가 올랐다. 그리고 나는 알토가 됐다. 저 높은 소프라노를 향하여~~
 나다로 립싱크 형의를 받고 있는 나다로입니다. 하지만! 전 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구요ㅠ
 나기 얼굴 없는 알토 사이버 세계의 리액션 전문가 아는연니들 닥달매너~☆
 우야 연니들의 공가드

Guest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 기즈메 나미꾸 낙타 만루 샌더 아론 유로 최강 코러스보이 현

제 2회 정기공연

B 언 니

1부



Over the Rainbow

곡 Harold Arlen / 글 E.Y.Harburg

어딘가 무지개 너머 저 편
 언젠가 꿈속에서 스쳐갔던 그 곳
 파이란 무지개 너머 하늘
 꿈속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리라
 어느 날 나는 별님에게 마법의 힘 달라고 빌었네
 내 근심 레몬처럼 사라지고 나는 하늘높이 날아가네

파랑새 무지개 넘어 날고
 나 또한 무지개 넘어 날으네

Born This Way

노래 Lady Gaga / 편 Alan Billingsley

My mama told me when I was young
 "We're all born superstars."
 She rolled my hair and put my lipstick on
 In the glass of her boudoir
 "There's nothing wrong with lovin' who you are"
 She said, "'cause He made you perfect, babe"
 So hold your head up girl and you'll go far,
 Listen to me when I say

I'm beautiful in my way
 'Cause God makes no mistakes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hide yourself in regret
 Just love yourself and you're set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Ooh there ain'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Ooh there ain'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Give yourself prudence
 And love your friends
 Subway kid, rejoice your truth
 In the religion of the insecure
 I must be myself, respect my youth
 I love my life I love this record and
 Mi amore vole fe yah!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Whether you're broke or evergreen
 You're black, white, beige, chola descent
 You're Lebanese, you're Orient!
 Whether life's disabilities
 Left you outcast, bullied, or teased
 Rejoice and love yourself today
 'cause baby you were born this way

Fly me to the moon

곡/글 Bart Howard / 편 송정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Habanera

곡 G.Bizet / 한글가사 아니 / 편 황수진

사랑은 반항하는 새 누구의 말도 안 듣지
 불려보아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붉은 새
 이 맘 꺾어도 봐도 가만 사정하여도 안돼요
 다만 내 맘이 움직여 내가 사랑할 뿐이지
 L'a mour! (사랑)

사랑은 집시의 아이 그 방법 따윈 알지 못해요
 그러기에 나 당신 사랑한다면 조심하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의 날개 심터가 되어 기다릴게

기다리면은 오지 않고 잊으려면 다시 와서
 잡힌 손에서 슬그머니 새들은 다시 하늘로
 빙글 빙글 돌면서 가까이 날아왔다가
 다가가면 달아나고 달아나면 다가오네
 L'a mour! (사랑)

사랑은 집시의 마음 이유를 따지지 말아요
 매정하게 구는 사람을 더욱 더 사랑한다네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해도
 그러나 그대 마음을 모르겠네!

2부



Red Light

노래 t(x) / 개사 이난

Ay Wait a minute 명절 때면 늘 하는 단골 질문 미쳐
 언제 가냐 물어대니 Yeah 물어대니 나 아차 하면 밉혀
 Ay Ay It's a Red Light, Light
 이젠 한계상황 지가 오지않았지도 몰라
 경고하는 지금 내 목소리를 잘 들어 Red Light
 잠시만 입을 쉬어봐 Eh- Oh-Eh-Oh
 아직 못 간 게 아냐

눈 크게 떠 여기 폭발 직전 핫소릴 멈춰
 '나이 들면 혼자 어떡할래' 그 말에 진심 버럭할 때

켜졌어 Red Light 선명한 Red Light
 스스로 켜져 그것은 Red Light

Boy 니가 말한 농담이란 해명 내겐 의문투성이 일뿐
 진짜 싱글세란 어쩌면 간보기 위한 수작
 It's a Red Light, Light
 여기에도 많지 혼자서도 잘 사는 비혼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비혼주의자이신데 Red Light
 할 일이 없는 걸까 Eh- Oh-Eh-Oh 소릴거리 찾아봐

눈 크게 떠 여기 폭발 직전 핫소릴 멈춰
 "애 낳아야 진짜 어른된다" 그 말은 진심 노답인데

켜졌어 Red Light 선명한 Red Light

스스로 커져 그것은 Red Light
켜져서 Red Light 두 개의 Red Light
상글세 같은 소리하네 Red Light

햇소리 멈춰 (이젠 한계상황 햇소리 하지마)
눈 크게 떠 (Yeah 너의 앞에 나타난 비흔을 봐)
몰어만 대던 (언제 가냐 늘 몰어대던)
오지라퍼 그건 Madness

No Break

곡/글 나다로,밀알 / 편 노르마

술은 끊어도 담뱃 못 끊고,
담뱃 끊어도 커피는 못 끊네
커피 끊어도 연애는 못 끊어 끊을 수가 없어 노노노노
나의 이성은 멈추라 늘 말하지만
늘 나의 마음은 노 브레이크야
나의 마음은 노 브레이크

러브 앤 개년

곡 아니케이 / 글 황병승 '러브 앤 개년' / 편 노르마

나의 연인은 말한다 우리가 아침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는 조금씩
모르게 될 거야
어째서 사랑은 그런 것일까

나의 연인은 말한다 우리가 늦은 밤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공원에서 들뜬에서도 만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영원히 모르게 될 것이고 밤과 낮 공원과
들뜬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겠지

나의 연인은 소리친다 입닥쳐 개년아 어째서라니
네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수록 너는 더 사랑에
목말라 해야 하고 이곳에 없는 나를 찾아 밤새도록
공원을 숲 속을 헤매게 될 거야
아침에도 낮에도 공원에서 들뜬에서도
만난다면 사랑은 그래야 하는 걸까
어째서 나를 개년이라 부르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인지
너의 말처럼 영원히 모를 수도 어쩌면
조금씩 알 수 있겠지

우리의 노래

곡 김나 / 글 이난

혼자서 부르던 노래가
들어 되고 셋 되어 세상에 퍼지네
어느 새 내 옆에 다가와
살며시 손 잡아주는 너의 노래

소리했던 하루의 고단함 감싸 안고
어루만지는 너의 목소리 들려오네
편함을 거야

혼자서 부르던 노래가

들어 되고 셋 되어 마음을 울리네
가만히 네 옆에 다가가
살며시 손 잡아본다
너의 노래
우리의 노래

3부



호프만의 뱃노래

곡 J.Offenbach / 한글가사 김나 / 편 황수진

그날 밤 사랑의 밤 미소에 취한 그 밤
낮보다 더 달콤한 오 아름다운 밤
시간은 우리 사이로 돌아오지 않고
사랑은 우릴 그곳에 머무르게 해

셋별 비너스여 같은 하늘을 돌아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주오
우리 가여히 쓰다듬어 주오
뜨거운 입맞춤 전해주오 아! 눈을 그대 나 그리오

그날 밤 사랑의 밤 미소에 취한 그 밤
낮보다 더 달콤한 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우리
아! 미소에 취한 밤 (미소에 취한 당신)
사랑의 밤 오! 그날 밤 (아름다운 그날 밤)

지울 수 없는 당신

곡 뽀, 푸하 / 글 고정희 '지울 수 없는 얼굴' / 편 노르마

냉정한 당신이라 썼다가 얼음 같은 당신도
불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다시 지우고

무심한 당신이라 썼다가 징그러운 당신이라
아냐 부드러운 당신이라 썼다 지운다

그윽한 당신 썼다가 지운다
따뜻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운
내 영혼의 요람 같은, 샘솟는 기쁨 같은
아니 아니 아니라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 지울 수 없는 얼굴 있음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곡 James Michael, Steves Joseph M. Martin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을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기뻐하지 아니하니

It Gets Better

곡 Jay Kuo & Blair Shepard / 한글가사 자루

친구야 혼자라고 느낄 때 미움 가득하다 느낄 때
끝이 아냐 혼자라 생각지마 아직 축하할 일 남아있는 걸
저기 봐 이제 알아질 거야 더 많은 것들이 지금보다
하늘 봐 더 나은 날 있으니 내일은 눈부신 해를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더 괴로움 줄어줄 거야 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더 다른 길이 있잖아
점점 나아질 거야 더 세상은 밝아질 거야 더
그러니 당당히 싸워 더 지금껏 그랬듯이

그날 위해서 살아가 웃기 위해서
친구야 나도 너와 같았어 끝이 없는 두려움 속에
지켜야 해 다른 이가 아닌 너 나를 찾으려 보일 거야
포기 마 다시 생각해 보면 빛날 수 있어 너의 무대야
포기 마 삶은 책과 같은 것 오늘의 장도 지날 거야
아직 남았잖아 볼라야 할 노래
만나야 할 친구 아름다운 노을
계속 살아가는 널 기다리는 것
용기 내 이제 시작인 거야

B
B
B

HERSTORY

2011

11월 아는연니들의 전신 물지마중앙단, 연니네트워크 일일호프
[연니, 달려]에서 데뷔!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위한 농성장에서 껌짝 공연

2012

2월 무지개행동 [LGBT 인권포럼] 축하공연
5월 [정삼가족 관람불가] 오프닝 공연
8월 연니네트워크 제7회 페미니즘캠프 [시스템 액트] 오프닝 공연
11월 한국어성민우회, 임출넷 [몸.몸.몸 말하기대회] 공연

2013

3월 물지마중앙단,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연니들'로 3월 6일
새 출발!
4월 아이다호 데이 프로젝트 [어느 멋진 날] 참여,
5월 아이다호 데이 액션 [All You Need Is Love] 캠페인 진행
6월 아돌 친족성폭력 생존자 수기 [꽃을 던지고 싶다] 출판기념회 축하공연

11월 제1회 육우당 문학상 작품집 출판 기념 문학의 밤
[길은 밤을 낚아서] 축하공연
12월 드디어 아는연니들 제 1회 정기공연! [아는연니들의 아는 여자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기념
[반차별 선언, 모여 말하다] 축하공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위한故유한숙님 시민분향소 문화제 공연

2014

4월 인권중심 사람 개관 1주년 기념식 축하공연
5월 L-Band [퀴어문화축제 후원금 마련을 위한 퀴어 바자회 콘서트]
공연
제 19회 서울인권영화제 개막식 축하공연
6월 서울여성가족재단 2014 작은풀리 발굴 및 성장 프로젝트 선정,
여성주의 작곡수업 진행
제 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막공연
7월 아시아 LGBT 합창단 네트워크 Proud Voices 가입
8월 연니네트워크 10주년 기념파티 공연
11월 무지개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원안통과를 위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촛불문화제] 공연
12월 아는연니들 제 2회 정기공연! [B연니]

STAFF

제 2회 정기공연 기획단

단장 이난
음악감독 김나
회계 밀알
파트장 푸하, 아니, 나다로
의상 소원
출부 의현

Thanks to

연습 공간을 허락해 주신 명동 향린교회와 고상균 목사님,
인내심 있게 지도해준 우리의 작곡 선생님 노르마 님,
위급할 때 언제나 달려와 준 실력파 반주자 시우 님,
풀뿌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함께 무대를 빛내 준 자매코러스 지보이스와 의리의 디자이너 민 님,
기꺼이 일손을 보태준 강치, 난새, 열차, 뭉, 해인 님,
공연을 함께 못했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발칙한양, 유나, 하니, 해보, 헤이유,
언제나 애써주는 연니네트워크 사무국과 운영지기들,
그리고 공연에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2회 정기공연 Staff

강치, 나기, 난새, 뭉, 발양,
열차, 우야, 유나, 하니, 해인